



국립중앙박물관은 연중 휴관일 없이 문을 엽니다.

[단 1.1, 설날, 추석 당일 휴관]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보 도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박물관 2016-85■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구문경학예연구사 Tel 02-2077-9271 gog72@korea.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 12. 16.(금)배포■ 따로 붙임: 사진 자료 있음■ 총 6쪽 

영원한 삶을 꿈꾸던 고대 이집트인을 만나다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이집트 보물전 -이집트 미라 한국에 오다- (Egyptian Treasures from the Brooklyn Museum)

- 기간 및 장소: 2016.12.20.~2017.4.9.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 전시품: 사람과 동물 미라, 관, 조각품, 장신구 등 229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2월 20일부터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 문명을 소개하는 특별전 ‘이집트 보물전’을 개최한다. 2009년 특별전 ‘파라오와 미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으로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박물관과 2년여의 협의를 거쳐 준비했다. 브루클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대 이집트의 사람과 동물의 미라를 비롯하여 화려하게 꾸민 관과 다양한 조각, 장신구 등 총 229건을 선보인다.

이집트는 수 세기 동안 고고학자들이 선망하는 발굴 장소였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집트는 신비로움의 대명사가 되었다.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은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웅장한 피라미드와 화려하고 신비로운 부장품들은 고대 이집트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을 담고 있다.

전시는 ‘영원한 삶’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총6부로** 구성하여 이집트인의 사후세계의 삶을 소개한다. **제1부에서는 ‘사후세계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이집트인들이 영원한 삶과 사후세계를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한다. 여기에는 사후세계의 왕인 오시리스가 동생인 세트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인 이시스의 도움으로 되살아나 사후세계의 왕이 된다는 신화와 관련된 신들의

조각상 등이 전시된다. 제2부에서는 ‘영원한 삶과 미라’라는 주제로 미라가 만들어지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또한 실제 화려하게 장식된 관과 미라가 전시된다. 제3부에서는 ‘영원한 삶을 위한 껍질거리’라는 주제로 이승의 풍요로운 삶이 저승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한다. 특히 사후세계에서 하인처럼 부리기 위해 무덤에 넣었던 ‘샵티’라고 불리는 작은 인형들은 이집트인들의 이러한 바람을 잘 보여준다. 제4부는 ‘부와 명예의 과시, 장례의식’이라는 주제이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의 차이가 장례물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다. 제5부는 ‘신성한 동물들’이라는 주제로 이집트의 독특한 신앙인 동물숭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결합하거나, 동물 그 자체로 신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어지는 제6부는 ‘영혼이 깃든 동물 미라’라는 주제로 고양이, 파오기 등의 미라와 관을 소개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동물이 사람과 함께 창조되었다고 믿었고, 신처럼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동물 미라를 만들고, 동물을 숭배하였던 것이다.

이집트인들이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심장의 무게를 재는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이집트인들의 생각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번 전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단순한 신비로움 가득한 보물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의 창의성, 예술성, 영원한 삶에 대한 열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이집트 보물전’전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개최된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http://www.egypt2017.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자료와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관 이양수(02-2077-9278), 학예연구사 구문경(02-2077-92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시개요

□ 전시개요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 I·II 실
- 기간: 2016년 12월 20일(화) ~ 2017년 4월 9일(일)
-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브루클린박물관, KBS한국방송
- 주관: KBS미디어, 동아일보사, (주)ENA
- 관람시간: 월, 화, 목, 금 09:00~18:00 / 수, 토 09:00~21:00 / 일, 공휴일 09:00~19:00
 - ※ 휴관일: 1월 1일, 설날
- 관람료: 성인 13,000원, 대학생 및 청소년 11,000원, 초등학생 8,000원, 유아 5,000원, 65세 이상 6,000원 (단체 20인 이상 할인)
 - ※ 무료 : 48개월 미만 유아, 단체 인솔자(교원 1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본인 및 동반 1인, 상이군경(1급-3급) 본인 및 동반 1인
 - ※ 예술인 패스 소지자 본인에 한해 2,000원 할인, 다둥이카드 소지자는 자녀수에 따라 20% 이상 할인, 장애인 4급-6급 관람 시 본인에 한해 50% 할인
 -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은 50% 할인 적용(당일 사용 한정)
- 전시 누리집: <http://www.egypt2017.com>

붙임 2. 전시구성 및 주요 작품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이집트인들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심어 준 것은 바로 신화였다. 태초의 왕이었던 오시리스(Osiris)는 그의 동생인 세트(Seth)에게 살해당하지만, 아내인 이시스(Isis)에 의해 되살아나 사후세계 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하며 사후세계의 삶을 꿈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들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게 되었다.



피라미드 모양의 새김돌(피라미디온)

©Photo BKM



오시리스 조각상

©Photo BKM

영원한 삶과 미라

영원한 삶은 죽은 사람의 몸이 보존되어야만 가능했다. 이를 위해 이집트인들은 주검을 미라로 만들었고, 이것은 복잡한 장례 절차의 시작이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os)는 『역사』에서 미라 제작 과정에 대해 비용에 따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주검이 완전한 탈수 상태의 미라로 만들어질 때까지 약 7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라와 관

©Photo BKM



관

©Photo BKM

영원한 삶을 위한 꺼묻거리

자신의 신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현세의 삶이 사후세계에서도 지속되기를 바라던 상류층 사람들은 성대하게 장례를 준비했다. 보석으로 만들어진 장신구, 화장도구, 음식을 담았던 많은 항아리 그리고 하인처럼 부릴 수 있는 샵티(Shabty)라는 인형 등은 사후세계에서도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꺼묻거리이다. 그리고 장례가 진행되는 과정과 다양한 봉헌을 보여주는 그림이 새겨진 새김돌에서 풍요로운 내세를 확인할 수 있다.



샵티
©Photo BKM



가족상
©Photo BKM



봉헌 의식 새김돌
©Photo BKM

부와 명예의 과시, 장례의식

장례 준비는 삶의 일부분처럼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이용하여 장례를 준비하고자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값비싼 재료처럼 보이게 하거나 흙을 재료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사용했다. 금과 같은 비싼 재료를 사용할 여유가 없는 이들은 재료에 도금을 하거나 색을 칠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흙으로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남성 미라 가면
©Photo BKM



여성 미라 덮개
©Photo BKM

신성한 동물들

이집트인들은 동물이 인간과 함께 창조되었다고 생각했다. 동물들의 능력과 성격은 신이 내린 것이라 생각했고, 동물이 신처럼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던 이집트인들에게 동물의 특성들은 다양한 신들과 비교할 좋은 대상이었다. 그 결과 동물의 얼굴을 한 신이 등장하게 되었고, 때로는 동물 그 자체가 신으로 여겨져 신전에서 길러지기도 하였다.



동물과 함께 있는 호루스

©Photo BKM



매 모습의 호루스

©Photo BKM

영혼이 깃든 동물 미라

동물 미라는 고대 문명 중에서 이집트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이집트인들이 동물을 식량의 대상이나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다면 동물 미라는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수천 만 구에 달하는 동물 미라는 이집트인들이 동물을 사람과 동등하거나 신과 같은 존재로서 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물 미라는 동물로 하여금 신에게 간절한 바람을 대신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이집트인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



따오기 관

©Photo BKM



고양이 관

©Photo BKM